

# 대학캠퍼스공간에서 여대생이 느끼는 범죄불안감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in University Campus

이 유 미\*

Lee, You-Mi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in university campus. In order to deal with it,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nalysis of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are conducted in 3 university campuses in Seoul. The results of the 228 questionnaires survey are analyzed in descriptive statistics through SPSS program. This study compares female collegian's the fear with male collegian's one. The result of this are the followings ; 1) The female have the bigger concerns than the male about the crime expected to happen to herself. 2) At night the female are limited in activity than male because of the fear of crime. 3) During day the female have the bigger fear of crime than the male in the space such as stairways and hallways, toilet, and elevator. 4) At night the female have the bigger fear of crime than the male in not only stairways and hallways, toilet, elevator but also pedestrian, green space, recreational space. 5) This study prov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llegian's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the collegian's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s etc.

키워드 : 범죄예방설계, 대학, 캠퍼스, 범죄예방, 범죄 불안감

Keywords : CPTED, university, campus, crime prevention, fear of crim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범죄율의 증가와 더불어 매스컴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범죄 피해 경험 소식 등을 접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sup>1)</sup>. 국내 선행연구결과<sup>2)</sup>, 여성 중에서도 20대 여성들이 그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대 여학생과 남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대학 캠퍼스공간은 대학생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서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원의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캠퍼스에서 최근 각 종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범죄두려움 등을 연구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셉테드)<sup>3)</sup> 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sup>4)</sup> 그 원인 중 하나로 대학캠퍼스에서는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 정희원,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lym0627@smu.ac.kr)

본 연구는 2011년도 상명대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1) 권인숙외, 2011, p102

2) 김홍순, 2007, p46

3)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환경조건의 3가지 요인이 구비될 때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도시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을 통해 범죄 및 불안감의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것임, 한국셉테드학회  
http://www.cpted.kr/

4) 강용길외 2010

어려워 대학생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익명성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하여튼 대학 캠퍼스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대학생들의 범죄불안감을 증가시키고 대학내 생활범위를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학업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는 범죄 위험이 높으면서 범죄불안감이 높은 많은 20대 여자 대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공간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내용 및 방법은 5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범죄와 관련된 대학캠퍼스공간계획과 여성의 범죄 불안감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설문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등을 파악한다. 셋째, 피해 범죄의 종류와 범죄피해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학생들이 선정한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을 조사 후 현장답사하여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대학캠퍼스공간에서 설문조사 대상 여자 대학생들이 느끼는 주간과 야간의 범죄불안감을 분석한다. 여섯째, 성별에 따라 범죄불안감 원인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교차분석, T검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3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대학 캠퍼스공간에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자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성별, 재학기간), 본인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 주간/야간에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건물(공간)과 이유, 전체 대학캠퍼스에 대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만족도, 주간/야간에 대학캠퍼스에 대한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만족도, 주간/야간에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대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공간별 주간/야간에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정도와 원인 등이었다.

대상 대학 3개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4일~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별로 100부씩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228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유호정의, 2010, 윤소진의, 2012

## 2. 선행연구 고찰

### 2.1 국내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여성에 대한 연구와 대학캠퍼스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국내 범죄예방설계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아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관련 연구의 대상은 주로 주거단지였다. 대학 캠퍼스공간에서 범죄예방설계에 대한 연구는 약간 있으나 범죄피해유형과 원인분석(박철현 2003), CCTV나 경비 등과 같은 측면에서의 CPTED 활용방안(박동균, 2006), 범죄예방관점에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공간별 만족도와 중요도(강석진 외, 2012)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내용 중 여대생의 불안감을 약간이라도 다룬 연구(유호정 외, 2010)는 매우 적었다.

한편 국내 범죄예방설계를 위한 여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조성 등의 건설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연구(권상우 외, 2007)가 진행되었으나 여성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권인숙외 2011)한 연구는 아주 적었다. 국내 여성의 관점이나 입장에서 범죄예방설계를 고려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불안감과 불안을 느끼는 공간유형(김홍순, 2007)에 대한 연구와 대규모 대학과 전문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의 범죄피해와 불안감을 조사하면서 대학내 공통적인 4개의 공간을 대상으로 여학생을 남학생과 비교한 연구(유호정 외, 2010)가 있었다. 위의 연구들은 범죄불안감이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따른 불안감까지는 다루지 못했고 연구 대상이 전체 연령의 여성이거나 대규모 종합대학 혹은 소규모 전문대학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연구 대상과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대상이 주로 국공립대, 대규모4년제 종합대학, 작은 전문대학이었는데 본 연구는 일반적인 중규모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범죄불안감을 대학내 소수의 공간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공통적인 다양한 공간과 실제 대학별 건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범죄불안감을 시간(주간, 야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그 원인을 실제 건물을 대상으로 공간특성을 분석하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가장 큰 차이는 여학생의 관점에서 걱정되는 피해 범죄종류,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건물(공간)과 그 세부공간,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건물의 공간 계획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2.2 대학교 캠퍼스공간의 물리적 환경 특성 분류**

본 연구에서의 캠퍼스공간내 공간유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1항과 별표 2, 대학캠퍼스 관련 연구(김중석, 2006, 안경환, 2009), 대학캠퍼스내 범죄 관련 연구(유효정의 2010, 윤소진외, 2012)를 종합해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하나는 대학별 공간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용도에 따라 대학의 공통된 평가가 용이하면서 셉테드 평가를 위해 중요시되는 공간구분이었다.

대학별 공간 즉, 건물과 외부공간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 구분에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부를 대학에 “공통된 독립 건물”로 정하였다. 운동장, 노천극장을 “공통된 독립 외부공간”으로 정하였다. “기타”에 대학내 나머지 건물들을 포함하였다.

공간용도에 따라 대학의 공통된 평가가 용이하면서 셉테드 평가를 위해 중요시되는 공간구분에 의해 3가지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외부공간”으로 보행로, 녹지공간, 휴게공간을 정하였다. “중간공간”으로 출입구와 그 주변 공간을 정하였다. “내부공간”으로 강의실, 계단과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과방과 동아리방을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의 공통된 평가가 용이하면서 셉테드 평가를 위해 중요시되는 공간구분에 의해 조사 분석하였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physical characteristics in university campus  
(표 1. 대학교 캠퍼스공간의 물리적 환경 특성 분류)

구분	구분	해당공간이나 시설
대학별 공간(건물과 외부공간)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 구분	공통된 독립 건물	도서관, 학생회관, 대학본관
	공통된 독립 외부공간	운동장, 노천극장
	기타	기타 개별적인 독립 건물
공통된 공간용도에 따라 평가가 용이하면서 셉테드 평가를 위해 중요시되는 공간구분	외부공간	보행로, 녹지공간, 휴게공간
	중간공간	출입구와 그 주변 공간
	내부공간	강의실, 계단과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과방과 동아리방

**2.3 대학교 캠퍼스공간에서의 범죄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의 캠퍼스공간내 범죄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대검찰청 범죄분석」 상 분류법에 의거한 강도, 절도, 손괴, 폭행, 강간, 방화를 기초로 하되, 기존의 대학내 범죄 관련 문헌 분석결과(유효정의 2010, 강석진외, 2012)를 종합하였다. 박동균(2006)연구에서는 캠퍼스공간내 범죄유형을 절도, 폭력, 성폭력(성희

롱포함), 사이버범죄로 구분하였고 유효정의(2010) 연구에서 도난, 강제유인, 폭행, 성추행, 욕설, 강석진외(2012) 연구에서 절도, 폭력, 성범죄, 파손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캠퍼스 공간계획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이버범죄와 기존연구에서 범죄피해가 적었던 강제유인 등은 제외하고 캠퍼스공간내 범죄유형을 도난, 폭행, 성폭력, 기타로 구분하였다.

**3. 조사결과 분석**

**3.1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

여학생과 남학생의 범죄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므로 대학 캠퍼스의 통제가능한 대부분의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적도록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크게 7가지로 설정하였다. 입지는 서울이고, 중규모 사립대학이고, 대지면적, 건폐율, 건물의 수, 각 대학교의 설립년도가 유사하고 학생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대학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대학으로 서울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3개를 선정하였다. 대상 대학의 설립년도, 대지면적, 입지, 주변시설, 지형, 건폐율, 도로체계, 배치 중심 공간 용도, 건물구성(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 단과대학수, 학생수 등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3개 대학의 설립년도가 유사하고 입지는 서울 중심지인 광화문에서 10km이내에 위치한다. 선행연구(6)에서 범죄율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properties and respondents  
(표 2. 대학별 캠퍼스내 건물과 응답자의 일반 특성)

구분	A대	B대	C대	
설립년도(년)	1937	1940	1934	
대지면적(m <sup>2</sup> )	81,722*	111,676	62,910	
입지(서울 중심지인 광화문에서의 거리)	5km이내	10km이내	10km이내	
주변 시설	주거지, 산	주거지, 공원	주거지, 공원	
지형	경사지	평지	평지	
건폐율	32%	29%	29%	
도로체계	선형**, 수목형	선형**, 수목형	선형**, 수목형	
배치 중심 공간 용도	도서관, 학생회관	도서관, 운동장	학생회관, 운동장	
건물갯수(동)	23	22	16	
단과대학수(개)	8	9	8	
학생 수(명)	약 10,000	약16,000	약13,000	
유효 설문지수(부)	79	59	90	
성별	여성(명, %)	37(47.4)	33(55.0)	36(40.9)
	남성(명, %)	41(52.6)	27(45.0)	52(59.1)

\*캠퍼스주변 임야의 면적은 제외함  
\*\*임승빈외, 2000년 연구결과에 근거한 유형화

6) 임승빈(1992), 강석진, 이경훈(2004)

과 관계가 있다고 언급되었던 견해율은 3개 대학 모두 29~32%로 유사하다. 단, 지형은 대지면적은 A대는 경사지고 B대와 C대는 평지이다.

3개 대학의 설문응답 학생들의 재학기간은 2년 이상~3년 미만이 36.3%에서 3년 이상~4년 미만이 37.7%로 주를 이루었다. 3개의 모든 대학에서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40.9~55.0%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하였다.

**3.2 대학 캠퍼스내 범죄 피해 현황과 피해 장소**

대학별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는 대부분 도난이었다. 성별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3참조). 타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도 대부분 도난이었고 그 외에 폭행, 성폭력 등이 있었다. 피해를 입은 범죄 종류의 응답결과는 대학 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본인이 대학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되는 범죄는 도난이 제일 많았다(표 4 참조). 단, 걱정이 되는 피해 범죄의 종류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피해건수가 적은 폭행을 기타에 포함하여 범죄의 종류를 도난, 성폭력, 기타로 구분해 교차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실제 본인이 성폭력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Table 3. Action for the crime prevention (표 3. 범죄예방을 위해 취하는 행위) 명(%)**

	여학생	남학생	Chi-Square -value	합
외출하되, 위험지역 보행 자제	50(48.1)	23(20.2)	33.035***	73(33.5)
지인과 동행	31(29.8)	23(20.2)		54(24.8)
무시하고 외출	20(19.2)	59(51.8)		79(36.2)
기타	3(2.9)	9(7.9)		12(5.5)
합	104(100)	114(100)		218(100)

\*p<.05,\*\*p<.005,\*\*\*p<.001

**Table 4. Type of experienced crime victim (표 4. 실제 경험한 피해 범죄의 종류) 명(%)**

구분	본인피해범죄		타인피해범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도난	18(100)	21(91.3)	31(88.5)	41(95.4)
폭행	0(0)	0(0)	1(2.9)	0(0)
성폭력	0(0)	0(0)	3(8.6)	1(2.3)
기타	0(0)	2(8.7)	0(0)	1(2.3)
합	18(100)	23(100)	35(100)	43(100)

**Table 5 Type of worrying crime victim (표 5. 걱정이 되는 피해 범죄의 종류) 명(%)**

	여학생	남학생	Chi-Square -value	합
도난	64(71.1)	85(82.5)	13.360**	149(77.2)
성폭력	21(23.3)	6(5.8)		27(14.0)
기타	5(5.6)	12(11.7)		17(8.8)
합	90(100.0)	103(100.0)		193(100.0)

\*p<.05,\*\*p<.005,\*\*\*p<.001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기존 연구결과(권인숙 외, 2011)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범죄 피해 장소로 가장 많이 응답한 공간(표 5 참조)은 강의실과 과방/동아리방이었다. 그밖에 건물 내 복도 및 계단, 화장실, 야외보행공간이 있었다. 대학별로 B대학에서는 강의실이 C대학에서는 과방/동아리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강의실과 과방/동아리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피해 범죄의 종류는 반 이상이 도난이었다.

**3.3 범죄불안감으로 인한 생활의 제약 여부와 범죄예방을 위해 취하는 행위**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대학내 생활에 제약을 받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주간에는 여학생, 남학생 모두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야간에,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야간에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범죄예방을 위해 취하는 행위를 조사분석 한 결과(표 7

**Table 6. Place of crime(표 6. 범죄 피해의 장소) 명(%)**

구분	장소	합
외부공간	야외보행공간	6(5.4)
	야외 녹지 공간	1(0.9)
	야외 휴게 공간	7(6.3)
중간공간	건물 출입구 주변	2(1.8)
내부공간	건물 내 복도 및 계단	11(9.9)
	과방/동아리방	28(25.2)
	강의실	36(32.4)
	화장실	7(6.3)
기타		12(10.8)
합		110(99)

**Table 7. Limited or unlimited freedom of action because of the fear of crime (표 7. 범죄불안감으로 인하여 대학내 생활에 제약을 받는지 여부)**

	여학생	남학생	평균	T-value
주간	4.02	4.03	4.03	-0.128
야간	2.93	3.66	3.30	-4.992***
평균	3.48	3.85		

1 매우 많은 제약을 받음, 5 전혀 제약을 받지 않음

\*p<.05,\*\*p<.005,\*\*\*p<.001

참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출하되, 위험지역 보행 자제한다거나 지인과 동행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수가 많았다.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무시하고 외출한다는 응답자수가 가장 많았다. 대학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없었다.

**3.4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

대학별 건물(공간)의 범죄불안감을 평가하기 위해 표 2에 근거하여 설문조사시 응답자로 하여금 대학내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과 그 주변 공간’을 주간, 야간에 각각 선정하게 하였다. 상위에 선정된 건물을 대학별로 정리한 후 현장 답사하여 공간계획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개대학의 공통된 독립 건물 중 도서관, 학생회관은 범죄불안감이 낮았다. 공통된 외부공간 중 노천극장은 3개 대학중 2개 대학에서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로 선정되었다. 대학별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로 A대학에서 JA관, JO관, 노천극장이, B대학에서 SA관, MO관, Y관이, C대학에서 NU관, BI관, 노천극장이 선정되었다. 공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8,9,10 참조).

**Table 8. The highest building/space in fear of crime-A university**  
(표 8.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A대학)



**Table 9. The highest building/space in fear of crime-B university**  
(표 9.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B대학)



**Table 10. The highest building/space in fear of crime-C university**  
(표 10.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C대학)



A대학에서 JO관은 학교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여 정문까지 이동거리가 가장 길고 야간에는 주변 보행로 이용자가 거의 없었다. 건물3층까지 한쪽 면이 지하에 있고 4층 이상도 건물내 복도 양 옆으로 대부분 강의실이 있으며 창문이 건물의 양끝에 하나씩 위치하여 복도에 조명을 켜지 않으면 어두웠다. JA관의 건물 주변외부공간에는 사각지대 같이 눈에 잘 띄이지 않고 어둡고 막힌 공간이 많았다. 이런 공간에 주간에는 흡연자들이 많았으나 야간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고 건물 쪽은 건물에 가리어 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노천극장은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드물었고, 보행로에서 노천극장이 나무나 장애물로 가려져 있어 일부 공간은 낮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B대학은 SA관은 건물 내부 복도가 낮고 좁아 출입구문이 크지만 내부에는 빛이 잘 들지 않았고 축고 음침한 기분이 들었다. 건물의 주변 곳곳에 있는 석상과 나무는 범죄자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MO관은 건물 규모가 작고 용도상 이용 빈도가 적었다. 이 건물 주변에 가파른 옹벽이 형성되어있었고 테니스장이 있어 주변보행로의 이용자 적었다. 야간에 조명이 어두웠다. Y관은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건물 뒤쪽과 담 사이에 샛길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었으며, 건물앞 보행로에서 보이지 않았고 어두워서 안전한 보행로로 인식되지 않았다. 건물 뒤편에 나무들이 있는 녹지공간은 밤에는 범죄자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다.

C대학은 NU관은 메인 캠퍼스와 멀리 있어 동일 대학 캠퍼스라는 인식을 떨어뜨렸다.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을시 동선이 길고, 아이스 링크장 주차장을 지나야하므로 외부인과 접촉이 많았다. 1층 필로티 공간의 많은 기둥과 주차된 차량들은 가시성을 낮춰 범인이 숨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야간에는 접근로에 조명이 적어 어두웠다. BI관은 건물규모가 크고 동선이 복잡하여 건물내 현재 서있는 위치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졌다. 작은 출입구들이 많아 출입구 주변이 어둡다. 이용자들이 많지 않았다. 주변의 많은 나무, 에어컨실외기, 쓰레기 처리장 등이 있어 교내 보행로나 다른 건물에서 시야가 차단되었다. 노천극장은 대부분의 주간엔 이용자가 많지 않고 야간에는 조명이 부족하여 어두워 가시성이 떨어졌으며, 노천극장 바로 뒤에 학교 후문이 있는데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여 외부인의 접근통제가 어려웠고, 실제 현장 답사시 외부인이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건물(공간), 해당 건물(공간)의 세부공간,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A대학과 C대학이 B대학에 비해 성별차이를 보였다. 특히 낮에 가장 불안한 건물(공간) 1위와 그 이유가 차이를 보였다. 낮에 가장 불안한 건물(공간)과 해당 건물(공간)의 세부공간으로 A대학 여학생은 JO관, 건물내 복도/계단을 선정하였고 남학생은 노천극장, 주차장을 선정하였다. C대학은 여학생은 NU관을 선정하였고 남학생은 NU관과 노천극장을 선정하였다. 선정사유에 대해서 A대학 여학생은 조명/햇빛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은 인적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C대학은 여학생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은 인적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범죄불안감을 느끼는(건물)공간이나 원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노천극장과 같이 인적은 드물지만 햇빛이 충분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범죄불안감을 덜 느끼는 반면, JO관 같은 반지하공간의 건물내 복도/계단이나 NU관의 필로티 주변공간처럼 개방적이지 않으면서 조명/햇빛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범죄불안감을 더 느낀다고 유추되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죄예방설계의 기본 원칙차원에서 보행자 시선에 의한 감시가능성, 공간이용의 활성화 정도,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대학캠퍼스의 범죄불안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특성에서 보면, 캠퍼스 대지의 경사도, 정문에서 건물의 거리, 주 보행로에서의 가시성 측면에서 본 외부공간의 위치, 공간의 개방성, 공간의 조명과 햇빛의 양, 건물 내부 동선의 명료함, 출입문의 형태와 위치, 창고의 위치와 면적 등이 범죄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 3.5 주간/야간에 느끼는 공간별 범죄 불안감

성별로 야간과 주간에 대학내 공간에서 범죄 불안감이 차이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표 11 참조). 대학내에서의 전반적인 불안감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범죄 관련 연구(권인숙외, 2011, 김홍순, 2007)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불안감을 더 느낀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세부공간에서의 여학생 불안감의 평균값과 남학생 불안감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다. 주간에 여학생은 화장실, 건물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야간에 여학생은 주간에 불안감을 느끼는 공간뿐 아니라, 외부보행공간, 녹지조경공간, 휴게운동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공간, 강의실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이 주간에 두려움을

Table 11.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e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and the male collegian's the fear of crime in specific spaces  
(표 11. 대학내 세부 공간에서의 성별 범죄불안감: t 검정)

구분	β1값	전체 여학생	전체 남학생	T-value	A대 여학생	A대 남학생	T-value	B대 여학생	B대 남학생	T-value	C대 여학생	C대 남학생	T-value
주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4.77	3.87	1.077	3.95	3.85	0.507	3.48	4.00	-2.223*	3.53	3.57	-0.165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3.75	3.83	-0.657	3.81	3.85	-0.236	<b>2.91</b>	3.69	-2.737*	<b>2.94</b>	3.31	-1.761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3.85	3.91	-0.514	3.86	3.90	-0.213	3.18	3.81	-2.835*	<b>2.86</b>	3.31	-2.052*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3.97	3.93	0.336	4.00	3.93	0.387	<b>2.45</b>	3.31	-2.786*	<b>2.56</b>	3.35	-3.549**
	강의실 범죄불안감	4.06	3.97	0.762	4.03	4.07	-0.242	3.64	4.23	-2.217*	3.36	3.51	0.554
	화장실 범죄불안감	3.54	3.98	-3.467**	3.19	4.10	-4.390***	3.15	3.58	-1.479	3.61	3.71	0.863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3.58	3.87	-2.280*	3.57	4.02	-2.482*	<b>2.76</b>	3.73	-3.525**	3.42	3.36	-0.918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3.78	3.73	0.428	3.68	3.90	-1.029	<b>2.73</b>	3.85	-3.603**	<b>2.83</b>	3.38	-2.461*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3.72	4.08	-2.863*	3.59	4.10	-2.407*	3.18	3.50	-1.055	3.58	3.35	0.871
	대학내 범죄불안감				3.24	4.05	-3.91***	2.97	4.12	-3.953	3.33	3.64	-1.330
야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b>2.81</b>	3.48	-4.962***	<b>2.59</b>	3.55	-4.31***	4.00	4.11	-0.511	3.71	3.75	-0.179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b>2.94</b>	3.45	-3.720***	<b>2.81</b>	3.40	-2.69*	3.91	4.19	-1.211	3.56	3.60	-2.380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3.09	3.60	-3.725***	<b>2.92</b>	3.56	-3.06**	3.97	4.37	-1.926	3.72	3.76	0.243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3.36	3.73	-2.766*	3.11	3.69	-2.62*	4.15	4.26	-0.505	3.78	3.77	0.046
	강의실 범죄불안감	3.25	3.64	-2.772*	<b>2.97</b>	3.60	-2.56*	4.09	4.11	-0.086	4.06	3.81	0.419
	화장실 범죄불안감	<b>2.79</b>	3.65	-5.655***	<b>2.22</b>	3.62	-5.42***	3.58	4.15	-2.232*	3.86	3.81	0.252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b>2.65</b>	3.55	-6.254***	<b>2.41</b>	3.58	-5.01***	3.35	4.19	-2.597*	3.64	3.59	0.225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3.24	3.44	-1.318	<b>2.95</b>	3.53	-2.08*	3.76	3.78	-0.075	3.92	3.56	0.279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3.07	3.79	-5.020***	<b>2.89</b>	3.78	-3.65***	3.73	4.26	-2.214*	3.83	3.96	-0.615
	대학내 범죄불안감				3.24	4.05	-3.91***	2.97	4.12	-3.953	3.33	3.64	-1.330

1 매우 불안함, 3 보통, 5 전혀 불안하지 않음 \*p<.05,\*\*p<.005,\*\*\*p<.001

느끼는 화장실, 엘리베이터는 다른 공간에 비해 폐쇄적인 공간으로 수상한 사람을 만났을 경우, 도망가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감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유추된다.

여학생이 주간과 야간에 보통(3점)이하의 불안감을 느끼는 세부공간을 중심으로 성별 불안감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간에 나타나는 범죄불안감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A대학 경우, 주간에 세부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보통(3점)이하를 나타내는 사례는 없었다. B대학 경우, 여학생은 외부녹지조경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건물내 복도와 계단, 과방 동아리방에서 범죄불안감을 보통(3점)보다 낮게 즉, 불안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불안감의 점수는 남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대학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외부녹지조경공간, 외부휴게운동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과방 동아리방에서 범죄불안감이 보통(3점)이하라고 응답하였고 불안감의 점수는 외부녹지조경공간을 제외하고 남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야간에 나타나는 범죄불안감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A대학 경우, 주간과 다르게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을 제외한 모든 세부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보통(3점)이하라고 응답하였고 남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건물출입구의 개수가 1, 2개 뿐이고, 출입구 규모가 크고 주변 조명이 밝아 제외된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B대학과 C대학 여학생의 경우, 보통(3점)보다 높게 즉, 불안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주간과 야간에 따라 A대학 여학생의 범죄불안감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평지인 B대학이나 C대학에 비해 지형이 경사지이어서 야간에 경사지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 이용자가 적어지고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가 평지에 위치한 건물에 비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범죄불안감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공간에 대한 것은 3.7에서 다루겠다.

### 3.6 대학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방법환경에 대한 만족도

대학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방법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내 전체 환경에 대한만족도(2.92)와 대학내 전체 환경에 대한만족도(2.97, 3.09)는 거의 보통(3)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 대학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만족도와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없었다. 대학내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측면에서 주간에 방법 환경 만족도는 여학생(3.58)과

남학생(3.38) 모두 보통(3)보다 높은 값이 나왔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었다. 그러나 야간에 방법 환경 만족도는 주간에 방법 환경 만족도에 비해 주간이었으며, 여학생의 만족도(2.40)가 남학생(2.76)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간에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여러 공간에서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된다.

### 3.7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와 주간/야간 세부공간별 불안감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공간별 범죄 불안감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 중 단계입력방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표 12>와 같다.

A대학 여학생의 경우, 야간 외부 보행공간 범죄불안감, 야간 건물내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이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B대학 여학생의 경우, 주간 강의실과 야간 외부 녹지공간 범죄불안감이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C대학 여학생의 경우, 주간 강의실과 야간 외부 보행공간 범죄불안감이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여학생과 달리 남학생들의 경우, 주간 외부보행공간, 주간 외부 휴게운동공간, 야간 화장실, 야간 과방동아리방에서 느끼는 범죄불안감이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대학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공간에서의 범죄 불안감을 성별로 비교해볼 때, 주간 강의실 범죄불안감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게 대학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실은 활용율이 높은 공간이면서 앞의 범죄피해장소에서 확인했듯이 도난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며, 문만 닫으면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하여 불안감을 높게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 유추된다. 또 여학생들의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야간 보행공간은 야간에 귀가길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이지만 야간에는 어두워서 조명이 있을지라도 주간에 비해 위협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특히 야간에 A대학의 꼭대기에 위치한 건물들의 건물내 복도와 계단은 이용인구가 적어 위협할 수 있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B대학 녹지공간은 건물 주변 특히 건물 뒤편과 담사이에 있는 경우, 야간에는 범죄자가 숨어있어도 보이지 않아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된다.

Table 12.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satisfaction in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the fear of crime in specific spaces: by stepwise method  
(표 12. 회귀분석-대학캠퍼스 공간에서의 성별 전체방법 환경만족도(종속변수)와 세부 공간에서의 불안감(독립변수) : 단계분석)

구분		β1값	A대 여학생	B대 여학생	C대 여학생	A대 남학생	B대 남학생	C대 남학생	
주간	외부공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0.574**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0.491**			
	중간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내부공간	강의실 범죄불안감			0.431**	0.353*			
		화장실 범죄불안감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야간	외부공간	외부보행공간 범죄불안감	0.364**		0.418**				
		외부녹지조경공간 범죄불안감			0.559***				
		외부휴게운동공간 범죄불안감							
	중간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 범죄불안감							
	내부공간	강의실 범죄불안감							
		화장실 범죄불안감							0.428**
		건물내 복도와 계단 범죄불안감	0.547***						
		과방 동아리방 범죄불안감							0.362**
		엘리베이터 범죄불안감							
F			24.879***	17.102***	7.842**	11.461**	11.327**	19.744***	
R2			0.594	0.541	0.322	0.241	0.330	0.467	
Adjusted R2			0.570	0.510	0.281	0.220	0.301	0.444	

Note 1: β=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p<.05,\*\*p<.005,\*\*\*p<.001

### 3.8 범죄예방측면에서 대학 공간계획/유지관리 만족도

성별 야간과 주간에 대학내 공간 불안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범죄예방측면에서 대학 내 공간계획/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였다(표 13,14 참조). 여기에 도출된 항목들은 기존 연구(박동균, 2010, 유호정 외, 2010, 강석진 외, 2012)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범죄 예방설계를 위해 도출된 계획항목과 유지관리 항목을 기초로 연구자가 재 작성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 대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단,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전체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낮았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학내 외부인 통제정도, 어두운 공간 없게 계획, CCTV 같은 감시장치 설치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대학 내 공간계획/유지관리 만족도가 대학캠퍼스 공간에서의 성별 전체방법 환경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대학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대학 여학생의 경우,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이 적게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만족도,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B대학 여학생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Table 13.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emale collegian's satisfaction and the male collegian's satisfaction in cpted design/maintenance  
(표 13. 성별 범죄예방측면에서 대학 내 공간계획/유지관리 만족도)

구분	여학생	남학생	평균	T-value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도록 계획	2.80	3.02	2.91	-1.818
범인이 숨을 건물(시설)이 없게 계획	2.79	3.03	2.91	-1.906
대학내 외부인 통제정도	2.41	2.69	2.55	-2.140*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 적게 계획	2.43	2.81	2.62	-3.109**
경비원 순찰 횟수	3.02	3.03	3.02	-0.021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획	2.81	2.98	2.90	-1.480
많은 사람 이용하게 계획	3.01	3.02	3.01	-0.056
용도나 이용시간에 따른 공간 구획과 안내판 설치	2.79	2.98	2.89	-1.533
CCTV 같은 감시장치 설치	2.51	2.83	2.67	-2.509*
청소와 유지관리	3.16	3.28	3.22	-0.894
평균	2.77	2.97	2.87	

1 매우 불만족, 3 보통, 5 매우 만족

\*p<.05,\*\*\*p<.005,\*\*\*p<.001

이용하게 계획했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C대학 여학생의 경우, 범인 숨을 건물시설 없게 계획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A대학 남학생은 여학생처럼 범죄



Table 1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the satisfaction in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in space design/maintenance  
(표 14. 회귀분석-대학캠퍼스 공간에서의 성별 전체방법 환경만족도(종속변수)와 대학 내 공간계획/유지관리 만족도(독립변수))

구분	β1값	A대 여학생	B대 여학생	C대 여학생	A대 남학생	B대 남학생	C대 남학생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도록 계획						0.414*	0.379**
범인이 숨을 건물(시설)이 없게 계획				0.614***			
대학내 외부인 통제정도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 적게 계획	0.385*						
경비원 순찰 횟수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획	0.436*				0.351*		
많은 사람 이용하게 계획			0.659***				
용도나 이용시간에 따른 공간 구획과 안내판 설치						0.496**	
CCTV 같은 감시장치 설치							0.362**
청소와 유지관리							
F		21.142***	23.816***	19.343***	5.326*	21.106***	11.859***
R2		0.554	0.434	0.377	0.123	0.647	0.331
Adjusted R2		0.528	0.416	0.357	0.100	0.617	0.303

Note 1: β=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able 1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safety and the satisfaction abou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s  
(표 15. 대학내 방법 환경 만족도와 대학내 전체 환경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대학캠퍼스 공간에서의 불안감	주간 방법 환경 만족도	야간 방법 환경 만족도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	대학 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
대학캠퍼스 공간에서의 불안감	1				
주간 방법 환경 만족도	0.36***	1			
야간 방법 환경 만족도	0.42***	0.47***	1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	0.46***	0.68***	0.73***	1	
대학 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	0.30***	0.51***	0.43***	0.57***	1

\*p<.05,\*\*p<.005,\*\*\*p<.001

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 원인을 건물 중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로 선정된 건물들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A대학의 경우, JO 건물의 복도는 경사지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지상이지만 한쪽에서는 지하에 있어 주간에도 어둡고, JA관처럼 건물과 벽에 의해 어두우며, 도망갈 수 없는 외부공간들이 학교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B대학의 경우, MO관처럼 규모가 작고 오래된 건물들은 이용자까지 적어 많은 사람 이용하게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된다. C대학 NU관의 1층의 필로티공간과 같이 기둥이 많아 시야를 가리는 공간 등으로 범인 숨을 건물시설 없게 계획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방법 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된다.

### 3.9 대학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 방법환경에 대한 만족도간의 상관분석

대학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측면에서 대학 방법환경에 대한 만족도간의 상관분석결과(표 15 참조)7), 대학캠퍼스 공간에서의 불안감은 야간 방법환경만족도와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주간 방법환경만족도는 야간 방법환경만족도,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 대학 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야간 방법환경만족도는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야간 방법환경만족도와 대학 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와 대학 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앞의 분석내용을 통해 대학 캠퍼스계획시 범죄불안감과 방법환경만족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7) 상관성 분석은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상관계수의 값이 사회과학분야에서 통상적으로 0.4이상인 경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 오택섭,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나남출판, p264<.20: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 .20-.40:낮은 상관관계, .40<-.70:비교적 높은상관관계, .70<-.90:높은상관관계

#### 4. 결과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한 여자 대학생을 위해 안전한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기초적 연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대학 캠퍼스공간에서 여학생들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의 3개 대학 22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 장소별 범죄불안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피해를 입은 범죄의 종류는 대부분 도난이었다. 앞으로 대학내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되는 범죄는 도난이 제일 많았지만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야간에 범죄 불안감으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았다. 범죄예방을 위해 무시하고 외출한다는 남학생들과 달리 많은 여학생은 외출하되, 위험지역 보행 자제한다고 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선정한 범죄불안감이 높은 건물(공간)의 건축계획특성을 분석한 결과, 캠퍼스의 지형(경사지/평지), 건물의 위치(정문과의 거리), 외부공간의 위치(주 보행로에서의 가시성), 건물 내부 동선(명료함), 문과 창 의 형태/위치/면적 등이 범죄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되었다. 특히, 반지하공간이나 필로티 주변공간처럼 개방적이지 않으면서 조명/햇빛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범죄 불안감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학내 공간에 대한 범죄 불안감이 높았다. 주간에는 여학생은 화장실, 건물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남학생에 비해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야간에 여학생은 주간에 불안감을 느끼는 공간뿐 아니라, 외부보행공간, 녹지조경공간, 휴게운동공간, 건물출입구와 그 주변공간, 강의실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의 방법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범죄불안감은 주간 강의실의 범죄불안감, 야간 외부보행공간의 범죄불안감, 외부녹지조경공간의 범죄불안감, 야간 건물내 복도와 계단의 범죄불안감이었다.

다섯째,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범죄예방측면에서 대학 내 공간계획/유지관리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대부분 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보통이하, 즉,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학

생의 방법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범죄예방측면에서 대학 내 공간계획/유지관리 항목은 햇빛이나 조명을 통해 어두운 공간이 적게 계획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고, 그밖에 범인이 숨을 건물이나 시설이 없게 계획, 범죄자로부터 도망가기 어려운 공간 없게 계획,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계획하는 것 등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항목들이 여학생들의 범죄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획방안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간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 내부 전체 환경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체 방법 환경 만족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실제 공간을 대상으로 여성의 범죄불안감에 대한 국내연구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된다.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20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학캠퍼스에서 범죄예방설계를 위하여 여자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을 남자 대학생의 범죄불안감을 주간과 야간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단, 본 연구가 조사대상으로 한 대학의 수나 대학생의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Kang Seok-Jin, Lee Kyung-Ho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the outdoor space activation and the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rate in Multi-Family Housing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Planning & Design, 20(2), pp.71-78, 2004
2. Kang, Yonggil, Pyo Changwon, 2010\A Study on the international improvement for university campus crime prevention, Community safety & environmental design, 1(2), pp.131-148, 2010
3. Kwon, Sang-Woo, Kim, Hong-Sok, Analysis of the Gender Equilibrium of a Sustainable City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Conference of the Korea Planners Association, pp.509-517, 2007
4. Kwon, In-Sook, Lee, Hwa-Yeon, Fear of sexual violence and social control, Journal of Asian Women, 50(2), pp.85-118, 2011
5. Kym, Jong-Seok, A Study on the Floor Area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chool Building Facilities by

- the Campus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1(1), pp48-55, 2006
6. Kim Heung-Soon, Exploring Non-sexist cities: Female perception of latent crime threats created by urban environmental elements, Journal of the Korea Planners Association, 22(1):pp.35-50.2007.02
  7. Park, Cheol-Hyun, The Cause of Crime Victimization in Korean Campus : Test of Life-style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15(1), 2003
  8. Park, Dong-Kyun, The collegian's perceptions analysis of crime victimization and it's prevention in campu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3(1), pp.19-33, 2006
  9. Ahn, Kyung-Hwan, A Study on the Planning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ampus Plan, 16(5), pp27-35, 2009.
  10. Ryu, Ho-Jung, Park, Eun\_Kyoung, Ha,Mi-Kyoung, A Study on Environmental Designs for a Safe Campus from Crime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Planning & Design, 26(8), pp.97-106, 2010
  11. Yun, So-Jin, Lee, Seung-Jae, Kang Seok-Jin, A Study on the Applicable Factors for the Crime-free Campus Focused on the CPTED,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Planning & Design, 28(3), pp.119-126, 2012
  12. Lee, You-Mi, The Study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Fear of Crime and the Evaluation Indicator for Residents' Safety of Outdoor Spaces from Crime in Multi-Family Hous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Planning & Design, 24(10), pp.121-128, 2008
  13. Im Seung-Bin, A study on the residential site design criteria for the prevention of crim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Planning & Design, 8(10), pp55-64, 1992
  14. Im Seung-Bin, Byeon, jae-sang, Park, Chang-sug, A Study on the Arrangement of University Campus Facilities Based on User Behavior,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Planning & Design, 16(12), pp55-62,n 2000

접수 2012. 11. 29  
 1차 심사완료 2013. 1. 11  
 2차 심사완료 2013. 1. 21  
 게재확정 2013. 1. 21